

‘회색’의 반란

‘회색’하면 일반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개성 없는 어정쩡한 무채색이 떠오른다. 회색은 흰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색이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어디쯤, 모호한 중간!

학창 시절 미술 시간, 빨강, 파랑, 노랑, 이색 저색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다보면 결국엔 우중충한 회색이 됨을 우리는 무수히 경험했다. 이 세상 모두를 갈아 모은다해도 아마 회색일 것이라 추론한다. 온 세상 켜켜이 쌓인 먼지가 그렇고 온갖 것이 모여 흐르는 시궁창이 그렇다. 물론 이 말은 서술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이 색은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런지 단어의 의미 또한 썩 훌륭하지 못하다. 사상 논쟁이 격렬한 곳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중도인 자들을 비판할 때 회색에 비유한다. 이때 이러한 자들을 ‘회색분자’라 일컫기도 한다.

그런데 이 회색이 큰 재주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극단의 색깔들이, 아니 아주 튀는 색깔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해 포기를 부를 때 회색을 들이대면 그 조화로우미 쾌재를 부를 정도로 묘약이다. 여기서 다른 가치의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 오자.

회색과 중용의 만남

사서 중에 하나인 ‘중용’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뒤흔떠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

즉, ‘자신의 마음 속 원대한 뜻은 흔들리지 않고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남의 눈치나 보며 남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그 상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정중하게 지적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용이다. 이럴 때는, 남의 비위만 맞추며 맞장구를 치는 것은 도리어 편향된 것이며, 만약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 그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상대의 잘못에 ‘자신의 주관’을 정중하게 말할 줄도 아는 것이 중용이다.

여기서 한자 ‘중(中)’이란 글자를 살펴보자. 이 글자는 갑골문에서 깃대를 뜻한다. 깃대에 달린 깃발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지만 그 중심에 있는 깃대는 굳건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종종 ‘중간만 가라’는 말을 중용으로 오인하는데, 이것은 중용이 될 수 없다. 서로 다른 가치판단의 중간에 있으면서 아무 생각없이 힘의 논리에 편승하는 것 역시 중용이 아니다. 또한 서로 다른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가 최후에 유리한 쪽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도 기회주의자이지, 중용은 아니다.

강조컨데 먼저 언급한 회색과 중용이 동급일 수는 없다. 그러나 힘에 동요하지 않는 회색과 중용의 만남은 찬성이다. 낱말에 의미가 중간에 있고 느낌이 청초하진 않지만 양극단으로 가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회색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극단의 좌우 대결을 경험했다. 역사에서도 배웠고 경험 중에 있다고 해도 그리 이상하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이념의 좌표에 무엇이 진실인지 혼돈하며 멀미를 앓고 있다. 세대간의 가치 충돌도 예외는 아니다.

종교가 서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중 가톨릭이 사실 많은 작용들을 해왔다. 부지부식 간에 화해과 사랑을 심는 메카니즘은 엄연히 작동했고 드러나지 않고 사회의 저변에 평화로 중심추 노릇을 해왔다. 지금 이 사순 시기 우리는 회개와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을 지내고 있다. 가톨릭 안에서 성장하며 배우고 정신적으로 훈련된, 묵상하는 신자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전사이다. 정쟁과 대립이 들끓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디디고 서 있어야 한다.

위험한 논리의 비약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한심하다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아니다, 귀 기울여 듣고 성찰해야 한다. 참아내는 고통이 지나면 들린다.

중도는 선명성에 매를 맞는다. 물론 회색이 정도(正道)는 아니다. 그러나 중용을 품은 회색은 조화라는 왕관을 씌워줄 수 있다. 자기 것만이 옳다는 극단의 외침에 미친한 회색의 소리없는 아우성이 타협없는 시대에 반란이 되길 기대한다.

오늘, 붉고 푸른 옷이 유지하다면 회색 외투로 갈무리하고 길을 나서보자.

글/강식 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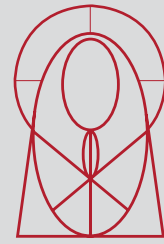


사순
제 6주일
2024년
03월 2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이사야서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 27)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을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성가 입당 119 봉헌 216, 340 성체 169, 152 파견 115

미사지향 (연미사)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규호 - 이규순(미카엘) 가족
- 김영례 - 가족
- 박미주(스텔라) - 염 세실리아
- 허윤(에디) - 이옥주(데레사)
- 고미야(마리아) - 가족
- 이광선(베드로)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어부들의 마을,
- 윤 날리 - 가족, 전옥주(글라라)
- 오애희(올리아나)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나제이(퀸틸라) - 송진영(마리스텔라)
- 한서윤(올리비아) - 송진영(마리스텔라)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3/17 주일 헌금 (147명).....	\$1,306
• 2차 헌금(부활절 꽃장식).....	\$216
• 감사헌금.....	익명(\$400)
• 교무금.....	\$3,700
김영필(3-4) 성낙순/성순영(1-12) 이용문(3)	
손영수(1-12) 황태진(3-4) 오현주(3-4)	
강성기(1-12)	

미사에 참례할 때에는 항상,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잘 읽고 묵상한 후에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성 요셉 성월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른 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의 삶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성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당 내에서는 가급적 정숙하여 주시고, 미사 전에는 핸드폰 전원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올리아나)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올리안나
송희수(글라라)	김삼식(베드로)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썬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6. 창문 여신 분은 떠나기 전에 꼭 닫아 주십시오

2차 헌금

- 3월 24일 : 은퇴 사제 및 수도자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3/24 청년회
- 3/24 주일은 성지주일 행렬 입장이 11시 20분에 시작하므로 십자가의 길을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2024년 성주간 전례 일정

• 3월 24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3월 25일(성월요일)	오전 9시 미사 (영), 경당
• 3월 26일(성화요일)	오전 9시 미사(영), 경당 오후 4시 주교좌 성당 성유 축성 미사
• 3월 27일(성수요일)	오전 9시 미사(영), 경당
• 3월 28일(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저녁 7시(한영통합), 성당 성체조배 (미사 후 - 10시)
• 3월 29일(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오후 3시 (한영통합), 성당 십자가의 길 저녁 7시, 경당
• 3월 30일(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저녁 7시(한영통합), 성당
• 3월 31일(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빵과 포도주 봉헌

- 3/24 채 쟈마, 정 아네스
- 3/31 채바오로, 채데레사

친교 봉사 일정

- 4/21 럽거스 • 5/19 노스에디슨+메타천 • 6/16 노스브린스익

2024 Bishop's Annual Appeal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본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3/15까지 약정된 금액은\$16,327 (목표금액의 44.1%) 입니다.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주일) 미사 후 성당
- 레지오 마리에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메타천 교구청 주관 다민족 문화 행사

- 일시 : 4월 20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소 : 메타천 주교좌 St. Frances of Assisi 대성당
- 다민족 행사에 참여 및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임영진(데레사) 새 사무장님 환영합니다

4월부터 사무실 근무 시간이 화- 금,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원할한 후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후보 공지 사항을 매 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신임 기획분과 위원 김성일(베드로), 이용문(안드레아) 형제님의 임명식이 3/24주일 미사중에 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이임하시는 강식(이보) 기획위원장님, 안현정(소화데레사) 전례분과장님, 김민주(이스베리가) 사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0,4-7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마르코 15,1-39)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 그러자 군중은 거둬 소리 질렀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6-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 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그분의 죄명 패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타니?”
 ○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
 ○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